

○ 박씨효열충수록(朴氏孝烈忠收錄)

: 효(孝)열(烈)충(忠)정(正) 정려기(旌闈記)

정조 십팔년(1794년) 갑인년에 제주어사 신 심락수(沈樂洙)가 임금께 아뢰어 말하기를 “제주사람 박계곤(朴繼崑)과 그의 딸 박씨 및 그 여종 고소락(高所樂)의 효열충은 마땅히 특이함을 정려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읍니다”라고 하였도다.

임금께서는 이르시기를 박계곤의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은 진실로 섬 북녘에선 듣기 힘든 기이한 일이다. 계곤에게는 또 그 딸로서 열부가 있고, 열부에게는 충직한 종이 있어 효와 열과 충이 다함께 모여 있구나” 라고 하셨도다.

어사에게 명하여 계곤이 마을로 나아가 이를 정려하게 하였는데, ‘효자열려’라 하고 한줄 밑으로 충직한 종의 이름을 낮게 편액하였고 행적을 적은 글을 엮도록 하여 제주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지나갈 때면 말에 탄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손으로 가리키게 하여 백대의 풍화(風化)와 성교(聖敎)를 세우도록 하라고 하셨도다.

명이 내리자 제주 사람들은 서로 더불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하기를 “우리 제주는 왕도(王都)와는 멀어 풍속이 교화됨이 거칠고 낮으며 사람들이 촌스럽게 되었지만, 이제 바다 북쪽에 가히 말할만한 것이 있도다. 전례 없이 임금이 은혜를 입은 영광은 어찌 박씨 혼자만이 갖는 것인가, 북치고 춤출 듯 감흥이 일어서는 구나”라고 하였도다.

신은 명을 받들어 정려하고, 차례를 베풀어 글을 짓는 도다.

삼가 살피건 데 박계곤은 제주의 하급관리로서 아버이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으로써 하였도다. 서울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부서졌는데, 겨우 사람이 안사는 외딴 섬에 닿았도다. 깨어진 널을 주워 이별하는 말을 쓰

고는 아버지에게 부치니 해류를 타고 흘러갔도다. 제주와 떨어지기는 물길 구백리이건 만 날이 저물기도 전에 널조각은 그의 집 문 앞에 닿았고 아버지가 이를 보고서는 가벼운 배를 내어가서 구하였도다.

경자년 국상 때는 섬사람들을 모아 이끌고는 바다를 건너 흙을 지어 날랐도다.

그의 딸 박씨는 일찍이 지아비를 여의었으나 지조를 지켰도다.

딸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고소락이다. 사투리에는 머리털이 부스스하고 위로 동그랗게 말려 올린 것을 '고소락머리'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집가지 않기를 맹세하고 그 주인을 지키며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열행이 있는데, 내가 감히 남자와 더불어 처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였도다. 육십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이 풀리어 느즈러지지 않았도다. 이것이 그 효열충의 실제 자취로다.

나라의 법에 특이한 것을 정려함은 흔히 몸을 나라에 바치는 데에 있으며 또한 그 실제 자취에 의거하는 것이라, 박군과 같은 경우 그 행위를 자취할 만한 것은 널조각이 표박한 것과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참고할 근거가 못된다고 하며, 그 딸 또한 과부로 수절하여 몸을 마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꼭 정려하는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홀로 계집종이 늙어죽도록 시집을 가지 않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넘는 지조이나 남녀의 도리를 폐함도 올바른 이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거니.

그러나 비천한 종으로 하여금 문득 생각을 일으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으로 기꺼워하며, 진실로 도리를 다하는 것을 좇았으니 누가 이렇게 시켰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어찌 지극한 정성의 느낀 바가 아니며, 천리가 담겨 있는 바가 아니라.

남녀가 배필과 가정을 두기를 원함은 사람의 정리로 진실 된 바라, 충직

한 종이 몸을 던져 도리를 폐함은 진실로 열려의 정절에 깊이 느낀 바가 아니라면 애써 힘쓴다든지 할 리 없고, 열려가 여염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정절을 지킴은 진실로 그 아버지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느낀 게 아니라면 그 어찌 쉬울 것인가.

충직한 종이 열려의 정절을 알고 열려가 효자의 지극한 행실을 알았으니 아마 그 성(盛)함이여, 임금께서 특별히 정려하는 은전을 명함은 어찌 이유가 없는 것이라.

이미 정려를 명하셨고, 임금께서 박효자의 자손 중환(重煥)이가 할아버지의 훈계를 지키며 병학을 익히고 난리에 당하여 국가의 도움을 갚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명하여 벼슬을 주셨도다.

섬사람들은 너도나도 탄복하여 착한 일을 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더불어 착한 일을 하기를 격려하고 권하였도다.

이를 좇아 온 섬 수백리에 정절과 효도를 행하는 무리들이 나옴이 빈빈하여 불만하고 우리 성조를 장식하여 점점 이웃에서 이웃으로 덕화(德化)가 번져나갈 것이로다, 아아 기쁠 뿐이로다.

갑인년 순무어사 원임지제교 행제주목사 겸 전라도수군방어사 신 심락수는 교지를 만들어 삼가 기록함.